

# 주거환경이 도시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between Urban and Rural Elderly

**Author** 정재훈 Jeong, Jae-Hoon / 정회원,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between urban and rural elderly. The research method is a questionnaire that surveys those aged 60 and old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ategorizing them into two groups, 503 residing in the elderly who live in Daejeon city and 676 in those who live in Chungnam area.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d that: First, life satisfaction of the urban elderly was higher than that of the rural elderly( $t=3.67, p<.001$ ). But depression between the two groups, the elderly who live in urban area and those who live in rural area,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urban elderly were convenience of housing, economic level, health status, local safety, life attitude, and period of residence. Third, the depression of urban elderly significantly related to health status, life attitude, economic level, age, and convenience of housing. Fourth,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rural elderly were health status, economic level, convenience of housing, local safety, life attitude, type of residence, and period of residence. Fifth, the depression of rural elderly significantly related to health status, life attitude, and economic level.

**Keywords** 노인, 고령사회, 주거환경, 생활만족도, 우울  
Elderly, Aging Society, Residence Environment,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 1. 서론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성공적인 노년의 삶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신체·생리적인 감퇴로 인하여 건강수준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질병과 죽음에 대해 취약해지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출가와 은퇴라는 사건은 수입의 감소, 가족관계의 변화, 역할상실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노인은 자존감이 저하되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노년기에 겪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는 인생의 어느 단계보다 주관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sup>1)</sup> 인간은 물론 모두 동일한 형태로 늙어가는 것은 아니다. 신체적 특성, 성격 특성 및 능력, 직업과 역할이 다른 가운데에서 생활해가고 있으므로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2)</sup> 한국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2018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가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예상된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고령화 정도가 더 심각하며, 2010년 도시지역의 고령 인구가 9.2%인 데 비해 농촌지역은 20.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sup>3)</sup> 도시지역은 소득수준이 높으며 주택, 병원, 문화시설 등 생활환경이 양호하고 접근성이 좋은 사회활용자원이 풍부하다. 이에 비해 농촌지역은 낡은 주택이 많고 주변 편의시설과도 떨어져 있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오랜 유대 관계망에 기초한 공동체 문화가 아직 남아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은 노인들의 고립을 막고 생활과정에 많은 친족,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게 해줌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이와 같이 거주지

- 1) 김태현 외,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998, p.150
- 2) 윤진,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 핵가족화와 노년복지,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pp.35-54
- 3)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 <http://kosis.kr>
- 4) 박순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도시노인과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역에 따라 노인의 생활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노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은 은퇴와 더불어 활동반경이 좁아지게 되면 점차 주거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주거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는 노인학분야에서 인구사회적인 요인에 치중되어 있어 물리적인 주거환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물리적인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사회적인 요인과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도시와 농촌 노인 사이에 생활만족도와 우울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과 관련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사용하였다.

### 2.1. 노인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이 노화되어간다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태, 즉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노화란 노년기 이전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여,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sup>5)</sup> 이는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가치와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개념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농촌노인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sup>6)</sup>와 두 집단 간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sup>7)</sup>가 상존

하고 있다. 생활만족도 예측변수로서는 Bowling 등(1996)<sup>8)</sup>은 건강과 생활동작능력을 보고하고 있으며 Asakawa 등(2000)<sup>9)</sup>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균 등(2007)<sup>10)</sup>은 대도시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중소도시에서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농촌지역에서는 자기안정감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석소현 등(2008)<sup>11)</sup>은 도시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수준, 취업기간, 사회활동참여정도, 자녀연락정도 등에서, 농촌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수준, 현재 노동여부, 사회활동참여정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권중돈 등(2000)<sup>12)</sup>은 학력, 일상생활동작능력, 경제수준, 주거편이도, 사회활동참여도, 친구수 등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 2.2. 노인의 우울

노년기는 특히 그들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연령군에 비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sup>13)</sup> Battle(1978)<sup>14)</sup>은 우울을 정상적인 기분변화에서부터 병적인 기분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우울은 노년기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상실, 즉 배우자의 죽음, 직업과 역할 상실, 소득감소, 신체적 건강악화 등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노년기의 우울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한다.<sup>15)</sup> 또한 석소현 등(2008)<sup>16)</sup>은 우울이 도시와 농촌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인의 우울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sup>17)</sup>가 있지만 도시노인

- 7) 석소현·김귀분,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비교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2008
- 8) Bowling, A.; Farquhar, M.; Grundy, E., Associations with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ree Samples of Elderly People Living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Geriatric Psychiatry 11(12), 1996
- 9) Asakawa, T.; Koyano, W.; Takatoshi A.; Hiroshi S., Effects of Functional Decline on Quality of Life among the Japanes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50(4), 2000
- 10) 최균·이정남,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의 지역별 특성 연구 -대도시(서울시), 중소도시(춘천 동지역), 농촌지역(춘천 읍면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3, 2007
- 11) 석소현·김귀분, 앞의 논문
- 12) 권중돈·조주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2000
- 13) 윤명숙·이묘숙, 지역사회 여성노인들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6, 2011, p.92
- 14) Battle, T.,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 42, 1978
- 15) 박순미, 앞의 논문
- 16) 석소현·김귀분, 앞의 논문
- 17) 강현욱·박경민, 도시와 농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한국노년학 32(1), 2012

농촌노인의 특성비교-, 노인복지연구 47, 2010, p.139 재인용

5) 김득희·황경렬, 농촌과 도시노인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간의 관계연구, 특수교육연구 21, 1998, p.101 재인용

6) 김득희·황경렬, 앞의 논문

이혜자·전동일, 노인 생활만족도의 지역효과 분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2011

이 농촌노인보다 더 높다는 보고<sup>18)</sup>도 있다. 또한 손신영(2006)<sup>19)</sup>은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삶의 질과 관련요인이 취약하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강현욱 등(2012)<sup>20)</sup>은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건강상태, 경제상태, 지역사회활동참여정도라고 밝히고 있으며 손용진(2010)<sup>21)</sup>은 성인자녀 및 사회와의 관계망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자료 및 연구방법

#### 3.1. 조사대상

노인의 연령기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에서 회갑연령과 현대 직장의 퇴직연령을 고려하여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공개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확률표집방법에 의하여 표집된 노인 중에서 대전·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집단은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도시노인 503명과 충청남도 읍면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촌노인 676명 등 총 1179명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2. 측정도구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는 인구사회적인 요소와 물리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인의 인구사회적인 요소에 대한 측정변수는 먼저 인구통계학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자녀수 등 4개 항목과 노인학분야의 선행연구(김득희 외, 1998; 권중돈 외, 2000; 최균 외, 2007; 석소현 외, 2008; 박순미, 2010)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진 주관적 경제수준 및 건강상태와 함께 삶의 태도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요소로서 건축분야의 선행연구(김대년 외, 2005; 박수빈, 2007; 정재훈, 2011)를 바탕으로 활동반경이 좁은 노인들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주택종류, 입주유형, 가구유형, 거주기간, 주택편리성, 지역안전성 등 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방법은 성별, 학력, 주택종류, 입

주유형, 가구유형 등은 명목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연령, 자녀수, 거주기간 등은 서열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주관적인 경제수준, 건강상태, 삶의 태도, 주택편리성, 지역안전성은 각각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5에 가까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울은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로 “예(1)”, “아니오(0)”로 응답하여 15점을 만점으로 하고 측정치가 8 이상이면 우울로 간주된다.<sup>22)</sup>

#### 3.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C용 전산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첫째, 두 집단 간 생활만족도 및 우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도시와 농촌 노인의 각 요인별 생활만족도 및 우울은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도시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4. 도시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정도 분석

#### 4.1. 도시와 농촌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을 비교해 보면 도시노인은 남성이 43.5%, 여성이 56.5% 참여하였으며 농촌노인은 남성이 44.5%, 여성이 55.5%로 두 집단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노인의 성별분포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연령은 도시노인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반면 농촌노인은 75세 이상의 고령자 분포가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이 도시보다 더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도시노인은 ‘초등졸업 이하’가 62.8%, ‘고등졸업 이상’이 21.3%인 반면 농촌노인은 ‘초등졸업 이하’가 85.1%, ‘고등졸업 이상’이 7.4%로 도시노인의 학력이 농촌노인의 학력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자녀수는 전반적으로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더 많은 자녀수를 보이고 있다. 주관적인 경제수준, 건강상태, 삶의 태도에서는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거환경요소에서 주택종류를 살펴보면 도시노인의 경

석소현·김귀분, 앞의 논문

18) 박순미, 앞의 논문

19) 손신영,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6(3), 2006

20) 강현욱·박경민, 앞의 논문

21) 손용진,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 관계망 및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2(3), 2010

22)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

<표 1> 도시와 농촌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n=1179)

변수		도시노인(n=503)		농촌노인(n=676)	
		n	%	n	%
성별	남	219	43.5	301	44.5
	여	284	56.5	375	55.5
연령	60-64	115	22.9	95	14.1
	65-69	147	29.2	166	24.5
	70-74	128	25.5	185	27.3
	75-79	78	15.5	135	20.0
	80세 이상	35	6.9	95	14.1
학력	무학	95	18.9	227	33.6
	초등 졸업	221	43.9	348	51.5
	중등 졸업	80	15.9	51	7.5
	고등 졸업	65	12.9	35	5.2
	대학졸업 이상	42	8.4	15	2.2
자녀수	없음	8	1.6	5	0.8
	1-2명	87	17.3	63	9.3
	3-4명	279	55.5	275	40.7
	5-6명	115	22.8	272	40.2
	7명 이상	14	2.8	61	9.0
경제수준	매우 불만족	41	8.2	28	4.1
	불만족	144	28.6	214	31.7
	보통	197	39.2	289	42.8
	만족	121	24.1	140	20.7
	매우 만족	0	0.0	5	0.7
건강상태	매우 아픔	61	12.1	78	11.5
	아픔	226	44.9	344	51.0
	보통	72	14.3	105	15.5
	건강	139	27.6	145	21.4
	매우 건강	5	1.0	4	0.6
삶의 태도	매우부정적	26	5.2	44	6.5
	부정적	204	40.6	274	40.5
	보통	140	27.8	176	26.0
	긍정적	131	26.0	169	25.0
	매우긍정적	1	0.2	11	1.6
주택종류	단독주택	202	40.2	612	90.5
	아파트	208	41.4	22	3.3
	연립주택	43	8.5	16	2.4
	다가구주택	32	6.4	6	.9
	상가주택	11	2.2	9	1.3
임주유형	자가	381	75.7	542	80.2
	전세	41	8.2	10	1.5
	월세	50	9.9	17	2.5
	기타	31	6.2	107	15.8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67	13.3	150	22.2
	노인부부가구	254	50.5	349	51.6
	자녀동거가구	161	32.0	131	19.4
	기타	21	4.2	46	6.8
거주기간	5년 미만	115	22.9	62	9.2
	5-10년미만	88	17.5	62	9.2
	10-15년미만	81	16.1	68	10.0
	15-20년미만	90	17.9	35	5.2
	20년 이상	129	25.6	449	66.4
주택편리성	매우 불편	5	1.0	19	2.8
	불편	37	7.4	96	14.2
	보통	85	16.9	128	18.9
	편리	340	67.6	402	59.5
	매우 편리	35	7.0	23	3.4
지역안전성	매우 불안전	1	0.2	3	0.4
	불안전	33	6.6	48	7.1
	보통	73	14.5	34	5.0
	안전	352	70.0	508	75.1
	매우 안전	41	8.2	82	12.1

우 아파트(41.4%)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농촌노인은 주로 단독주택(90.5%)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임주유형은 도시노인(75.7%)과 농촌노인(80.2%) 모두 자가소유가 가장 많으며 월세는 도시노인(9.9%)이 농촌노인(2.5%)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구가 도시노인(50.5%)과 농촌노인(51.6%) 모두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시노인은 자녀동거가구(32.0%)가, 농촌노인은 노인독거가구(22.2%)가 많았다. 이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거주기간을 보면 농촌노인은 20년 이상 거주가 66.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도시노인은 20년 이상 25.6%, 5년 미만 22.9%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주택편리성은 편리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도시노인(67.6%)이 농촌노인(59.5%)보다 높았으며 지역안전성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농촌노인(75.1%)이 도시노인(70.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 주거환경이 농촌보다는 편리하나 지역안전성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 4.2. 도시와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 차이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전체적인 생활만족도는 <표 2>에서와 같이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가 평균 3.30,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가 평균 3.13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t=3.67, p<.001$ ). 이는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농촌노인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우울은 도시노인(4.93)과 농촌노인(5.27)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삶에 대한 우울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고 해석된다.

<표 2> 도시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차이

변인	도시노인		농촌노인		t
	M	SD	M	SD	
생활만족도	3.30	.79	3.13	.78	3.67**
우울	4.93	4.42	5.27	4.29	-1.33

\* $P<.01$ , \*\* $P<.001$

#### (1) 요인별 도시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차이

<표 3>에서 보듯이 도시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학력( $F=3.898, p<.001$ ), 경제수준( $F=34.518, p<.001$ ), 건강상태( $F=9.921, p<.001$ ), 삶의태도( $F=28.470, p<.001$ ), 임주유형( $F=3.972, p<.01$ ), 가구유형( $F=5.329, p<.01$ ), 주택편리성( $F=4.706, p<.001$ ), 지역안전성( $F=3.288, p<.01$ ) 등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농촌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생활만족도는 성별( $t=3.965, p<.001$ ), 학력( $F=4.354, p<.01$ ), 경제수준( $F=39.064, p<.001$ ), 건강상태( $F=14.626, p<.001$ ), 삶의 태도( $F=71.289, p<.001$ ), 임주유형( $F=5.653, p<.01$ ),

<표 3> 요인별 도시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수		도시노인(n=503)		농촌노인(n=676)	
		M	t/F	M	t/F
성별	남	3.39	.233	3.26	3.965**
	여	3.23		3.03	
연령	60-64	3.44	.948	3.37	1.402
	65-69	3.34		3.22	
	70-74	3.22		3.11	
	75-79	3.29		2.94	
	80세 이상	3.01		2.95	
학력	무학	2.99	3.898**	2.95	4.354**
	초등 졸업	3.26		3.21	
	중등 졸업	3.43		3.27	
	고등 졸업	3.48		3.29	
	대학졸업 이상	3.68		3.04	
자녀수	없음	3.00	.546	2.00	1.354
	1-2명	3.31		3.08	
	3-4명	3.28		3.20	
	5명 이상	3.32		2.88	
경제수준	매우 불만족	2.20	34.518**	2.57	39.064**
	불만족	3.16		2.84	
	보통	3.37		3.14	
	만족	3.61		3.52	
	매우 만족	-		3.40	
건강상태	매우 아픔	2.95	9.921**	2.85	14.626**
	아픔	3.18		3.04	
	보통	3.42		3.10	
	건강	3.57		3.53	
	매우 건강	3.80		3.00	
삶의 태도	매우 부정적	2.73	28.470**	2.27	71.289**
	부정적	3.08		2.96	
	보통	3.27		3.13	
	긍정적	3.74		3.51	
	매우긍정적	5.00		4.00	
주택종류	단독주택	3.30	2.404	3.13	1.147
	아파트	3.38		3.27	
	연립주택	3.05		3.06	
	다가구주택	3.06		2.67	
	상가주택	3.64		2.89	
입주유형	자가	3.36	3.972'	3.19	5.653'
	전세	3.20		2.90	
	월세	2.96		2.71	
	기타	3.14		2.93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3.06	5.329'	2.89	10.130**
	노인부부가구	3.41		3.26	
	자녀동거가구	3.20		3.02	
	기타	3.52		3.26	
거주기간	5년 미만	3.36	1.014	3.03	1.248
	5-10년미만	3.00		3.24	
	10-15년미만	3.50		3.19	
	15-20년미만	3.29		3.66	
	20년 이상	3.19		3.04	
주택편리성	매우 불편	2.40	4.706**	2.42	7.990**
	불편	3.22		2.99	
	보통	3.02		2.98	
	편리	3.37		3.22	
	매우 편리	3.46		3.61	
지역안전성	매우 불안전	4.00	3.288'	3.33	2.374
	불안전	3.15		3.13	
	보통	3.05		2.91	
	안전	3.39		3.11	
	매우 안전	3.10		3.38	

\*P<.01, \*\*P<.001

<표 4> 요인별 도시와 농촌 노인의 우울

변수		도시노인(n=503)		농촌노인(n=676)	
		M	t/F	M	t/F
성별	남	4.03	2.156'	4.36	-5.017**
	여	5.62		6.00	
연령	60-64	3.77	2.156'	3.17	2.561**
	65-69	3.99		4.59	
	70-74	5.95		5.27	
	75-79	5.52		6.42	
	80세 이상	7.55		7.83	
학력	무학	7.64	7.470**	6.93	9.693**
	초등 졸업	5.01		4.58	
	중등 졸업	4.05		3.76	
	고등 졸업	3.48		4.56	
	대학졸업 이상	1.83		2.06	
자녀수	없음	4.33	1.312	4.64	2.956'
	1-2명	5.26		4.41	
	3-4명	4.74		4.74	
	5명 이상	5.79		5.82	
경제수준	매우 불만족	10.27	53.665**	8.89	55.437**
	불만족	6.82		7.31	
	보통	4.32		4.75	
	만족	2.36		3.17	
	매우 만족	-		4.20	
건강상태	매우 아픔	9.42	58.148**	4.47	66.904**
	아픔	6.20		4.00	
	보통	3.36		3.17	
	건강	1.91		2.32	
	매우 건강	.40		3.42	
삶의 태도	매우 부정적	10.00	31.856**	9.95	58.584**
	부정적	6.46		7.17	
	보통	3.93		4.11	
	긍정적	2.59		2.50	
	매우 긍정적	3.00		.27	
주택종류	단독주택	5.37	3.944'	5.37	2.419
	아파트	4.15		3.68	
	연립주택	6.14		3.25	
	다가구주택	6.50		8.33	
	상가주택	2.55		6.22	
입주유형	자가	4.31	9.825**	4.84	9.571'
	전세	6.97		7.20	
	월세	7.36		7.88	
	기타	6.41		6.82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6.93	12.442**	6.78	8.742'
	노인부부가구	3.83		4.68	
	자녀동거가구	5.72		5.14	
	기타	5.62		5.20	
거주기간	5년 미만	4.21	1.427	5.30	1.161
	5-10년미만	5.14		5.17	
	10-15년미만	3.32		4.68	
	15-20년미만	3.28		3.30	
	20년 이상	5.61		5.57	
주택편리성	매우 불편	9.80	6.894**	10.21	10.236**
	불편	6.38		6.64	
	보통	6.74		5.73	
	편리	4.36		4.68	
	매우 편리	3.74		3.91	
지역안전성	매우 불안전	10.00	2.028	5.67	.724
	불안전	4.58		5.54	
	보통	6.15		5.91	
	안전	4.61		5.31	
	매우 안전	5.54		4.60	

\*P<.01, \*\*P<.001

가구유형(F=10.130, p<.001), 주택편리성(F=7.990, p<.001)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두 집단 모두에서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학력, 경제수준, 건강상태, 삶의 태도, 입주유형, 가구유형, 주택편리성 등으로 조사되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택이 편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입주유형은 자가 소유일 때, 가구유형은 자녀동거나 노인독거가구보다 노인부부가구일 때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요인별 도시와 농촌 노인의 우울 차이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도시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별(t=2.156, p<.01), 연령(F=2.156, p<.01), 학력(F=7.470, p<.001), 경제수준(F=53.665, p<.001), 건강상태(F=58.148, p<.001), 삶의 태도(F= 31.856, p<.001), 주택종류(F=3.944, p<.01), 입주유형(F=9.825, p<.001), 가구유형(F=12.442, p<.001), 주택편리성(F=6.894, p<.00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우울은 성별(t=-5.017, p<.001), 연령(F=2.561, p<.001), 학력(F=9.693, p<.001), 자녀수(F=2.956, p<.01), 경제수준(F=55.437, p<.001), 건강상태(F=66.904, p<.001), 삶의 태도(F=58.584, p<.001), 입주유형(F=9.571, p<.01), 가구유형(F=8.742, p<.01), 주택편리성(F=10.236, p<.001)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두 집단 모두에서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건강상태, 삶의 태도, 입주유형, 가구유형, 주택편리성 등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우울이 높았으며, 고령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삶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주택이 불편할수록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입주유형은 월세나 전세처럼 불안정할수록, 가구유형은 노인독거가구에서 높은 우울증세를 보였다. 이는 경제, 주거 등 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처럼 정서적 지원이 취약한 노인에게서도 우울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 4.3.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자녀수, 경제수준, 건강상태, 삶의 태도와 주거환경변수인 주택종류, 입주유형, 가구유형, 거주기간, 주택편리성,

지역안전성 등 13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에서 보듯이,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주택의 편리성( $\beta$ =.294, p<.001)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수준( $\beta$ =.286, p<.001), 건강상태( $\beta$ =.277, p<.001), 지역의 안전성( $\beta$ =.224, p<.001), 삶의 태도( $\beta$ =.216, p<.001), 그리고 거주기간( $\beta$ =.111, p<.001)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거환경요소에서는 주거환경이 편리할수록, 주거지역이 안전할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소에서는 경제수준에 만족할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삶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회귀식에서 Durbin-Watson값<sup>23)</sup>은 1.466으로 자기상관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계수(R<sup>2</sup>)는 .594로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 변량 중 59.4%를 설명해주고 있다.

<표 5>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변수	B	$\beta$	p
(상수)	1.785		
성별#	.036	.048	.137
연령	-.003	-.045	.184
학력#	.011	.044	.207
자녀수	.017	.061	.065
경제수준	.187	<b>.286</b>	<.001
건강상태	.100	<b>.277</b>	<.001
삶의 태도	.087	<b>.216</b>	<.001
주택종류#	-.011	-.037	.243
입주유형#	-.016	-.042	.184
가구유형#	-.009	-.017	.562
거주기간	.000	<b>.111</b>	<.001
주택편리성	.144	<b>.294</b>	<.001
지역안전성	.106	<b>.224</b>	<.001
R <sup>2</sup> =.594, 수정된 R <sup>2</sup> =.583, p<.001			

#= dummy 변수, B= 비표준화 회귀계수,  $\beta$ = 표준화된 회귀계수

도시노인의 우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도시노인의 우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beta$ =-.360, p<.001)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삶의 태도( $\beta$ =-.221, p<.001), 경제수준( $\beta$ =-.207, p<.001), 그리고 연령( $\beta$ =.168,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삶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도시노인의 우울은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도시노인의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거환경요인 중에서는 주택의 편리성( $\beta$ =.294, p<.001)이 도시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즉 좋은 주거환경이 도시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킨다고 해석된다. 본 회귀식에서

23) 자기상관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한 검정통계량으로 2에 가까우면 자기상관현상이 무시될 수 있지만 0에 가까우면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내며 4에 가까우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Durbin-Watson값은 1.612이며 도시노인의 우울 변량 중 46.0%( $R^2=.460$ )를 설명해주고 있다.

<표 6> 도시노인의 우울에 대한 중회귀분석

변수	B	$\beta$	p
(상수)	7.476		
성별#	.092	.010	.780
연령	.117	<b>.168</b>	<.001
학력#	-.032	-.011	.787
자녀수	-.276	-.087	.023
경제수준	-1.577	<b>-.207</b>	<.001
건강상태	-1.514	<b>-.360</b>	<.001
삶의 태도	-1.069	<b>-.221</b>	<.001
주택종류#	-.129	-.037	.305
입주유형#	.358	.081	.027
가구유형#	.379	.063	.067
거주기간	.001	.022	.537
주택편리성	-.731	<b>-.129</b>	<.001
지역안전성	.306	.056	.120

$R^2 = .460$ , 수정된  $R^2 = .445$ ,  $p < .001$

#= dummy 변수, B= 비표준화 회귀계수,  $\beta$ = 표준화된 회귀계수

#### 4.4.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7>에 나타나듯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beta=.289$ ,  $p < .001$ ),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beta=.331$ ,  $p < .001$ ), 삶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beta=.153$ ,  $p < .001$ )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환경요인 중에서는 주택의 편리성( $\beta=.205$ ,  $p < .001$ )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주거지역이 안전할수록( $\beta=.179$ ,  $p < .001$ )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주유형에서는 월세보다는 자가 소유일 때( $\beta = -.105$ ,  $p < .001$ )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beta = -.093$ ,  $p < .01$ )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농촌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수리를 하지 않아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회귀식에서 Durbin-Watson값은 1.485이며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53.1%( $R^2 = .531$ )이다.

<표 7>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변수	B	$\beta$	p
(상수)	2.149		
성별#	.008	.012	.705
연령	.000	-.002	.947
학력#	.005	.017	.598
자녀수	.003	.012	.690
경제수준	.190	<b>.289</b>	<.001
건강상태	.121	<b>.331</b>	<.001
삶의 태도	.053	<b>.153</b>	<.001
주택종류#	-.018	-.050	.076
입주유형#	-.034	<b>-.105</b>	<.001
가구유형#	.015	.034	.222
거주기간	.000	<b>-.093</b>	<.01
주택편리성	.069	<b>.205</b>	<.001
지역안전성	.087	<b>.179</b>	<.001

$R^2 = .531$ , 수정된  $R^2 = .522$ ,  $p < .001$

#= dummy 변수, B= 비표준화 회귀계수,  $\beta$ = 표준화된 회귀계수

농촌노인의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표 8에서와 같이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beta = -.344$ ,  $p < .001$ ), 삶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beta = -.326$ ,  $p < .001$ ),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beta = -.204$ ,  $p < .001$ ) 농촌노인의 우울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거환경요인에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회귀식에서 Durbin-Watson값은 1.839이며 결정계수( $R^2$ )는 .479이다.

<표 8> 농촌노인의 우울에 대한 중회귀분석

변수	B	$\beta$	p
(상수)	13.972		
성별#	.106	.012	.704
연령	.041	.066	.057
학력#	-.114	-.032	.366
자녀수	.001	.000	.991
경제수준	-1.615	<b>-.204</b>	<.001
건강상태	-1.514	<b>-.344</b>	<.001
삶의 태도	-1.414	<b>-.326</b>	<.001
주택종류#	-.086	-.019	.517
입주유형#	.196	.051	.095
가구유형#	.124	.024	.423
거주기간	-.001	-.044	.157
주택편리성	-.313	-.077	.012
지역안전성	-.075	-.013	.660

$R^2 = .479$ , 수정된  $R^2 = .469$ ,  $p < .001$

#= dummy 변수, B= 비표준화 회귀계수,  $\beta$ = 표준화된 회귀계수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 노인 간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반면 우울은 도시와 농촌 노인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은 주택의 편리성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경제수준, 건강상태, 지역의 안전성, 삶의 태도, 거주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삶의 태도, 경제수준, 연령, 주택의 편리성 순으로 분석되었다.

(3)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했으며, 경제수준, 주택의 편리성, 지역의 안전성, 삶의 태도, 입주유형, 거주기간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삶의 태도, 경제수준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김득희 등(1998)<sup>24</sup>, 이해자 등(2011)<sup>25</sup>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고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없다는 석소현 등(2008)<sup>26)</sup>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그리고 노인학분야 연구에서 유의한 요소로 밝혀진 경제수준과 건강상태보다 주택의 편리성이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빠르고 복잡한 도시환경에서는 주택의 편리성이 노인에게 정서적 편안함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생활만족도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건강상태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다음으로 경제수준, 주택의 편리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농촌노인은 주택의 편리성보다 도시에 비해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자녀들과 떨어져서 노인부부가구나 노인단독가구가 많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우려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우울에 있어서는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도시노인이 농촌노인보다 우울이 더 높다는 박순미(2008)<sup>27)</sup>의 연구결과와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우울이 더 높다는 석소현 등(2008)<sup>28)</sup>, 강현욱 등(2012)<sup>29)</sup>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추후 더 많은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모두에서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로 밝혀졌다. 도시노인이거나 농촌노인에 관계없이 몸이 불편할 때 나약해지고 혹시 닥칠지도 모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주관적 건강상태 및 경제수준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에서 주택의 편리성과 지역의 안전성 역시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예측변수로써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활동반경이 좁아지고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정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국의 노인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도에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주거환경요소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1. Asakawa, T.; Koyano, W.; Takatoshi A.; Hiroshi S., Effects of Functional Decline on Quality of Life among the Japanes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50(4), 2000
2. Battle, T.,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 42, 1978
3. Bowling, A.; Farquhar, M.; Grundy, E., Associations with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ree Samples of Elderly People Living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Geriatric Psychiatry* 11(12), 1996
4. Evans, R., A Comparison of Rural and Urban Older Adults in Iowa on Specific Markers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2(4), 2009
5. Mechakra-Tahiri, S.; Zunzunegui, M. V.; Prévile, M.; Dubé, M., Soci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among People 65 Years and Over Living in Rural and Urban Areas of Quebec, *International Journal Geriatric Psychiatry* 24, 2009
6. Snowdon, J., Dementia,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Nursing Homes, *International Journal Geriatric Psychiatry* 1(2), 1986
7. 강현욱·박경민, 도시와 농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한국노년학* 32(1), 2012
8. 권중돈·조주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2000
9. 김대년·권오정, 노인요양시설 입주 의사가 있는 한국 중년층의 노후 전망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과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1(1), 2005
10. 김득희·황경열, 농촌과 도시노인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간의 관계연구, *특수교육연구* 21, 1998
11.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998
12. 박수빈, 중·노년층의 요구 분석에 의한 노년기 주거디자인의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3(5), 2007
13. 박순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비교-, *노년복지연구* 47, 2010
14.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
15. 석소현·김귀분,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비교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2008
16. 손신영,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6(3), 2006
17. 손용진,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 관계망 및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2(3), 2010
18. 윤명숙·이묘숙, 지역사회 여성노인들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6, 2011
19. 윤진,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 핵가족화와 노년복지,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20. 이해자·전동일, 노인 생활만족도의 지역효과 분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2011
21. 정재훈, 자녀와 동거노인과 비동거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7(4), 2011
22. 최균·이정남,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의 지역별 특성 연구 -대도시(서울시), 중소도시(춘천 동지역), 농촌지역(춘천 읍면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3, 2007
23.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

24) 김득희·황경열, 앞의 논문

25) 이해자·전동일, 노인 생활만족도의 지역효과 분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2011

26) 석소현·김귀분, 앞의 논문

27) 박순미, 앞의 논문

28) 석소현·김귀분, 앞의 논문

29) 강현욱·박경민, 앞의 논문

[논문접수 : 2012. 10. 31]

[1차 심사 : 2012. 11. 13]

[재확정 : 2012. 12. 10]